절교 선언에 '울컥 살인'

고흥서 20대 대학생, 여자친구 자매 둔기 폭행…언니 숨져

여자친구 중상·자신은 도주하다 자해

절교 선언에 격분한 20대 대학생이 여자친구 자매에게 야구 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언니가 숨지고, 여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K(여·46)씨 집에서 K씨의 둘째 딸 J(22)씨의 남자 친구 김모(24·광주 C대 1학년)씨가 J씨와 언니(26)에게 야구 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J씨의 언니가 숨지고 J씨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언니는 인근 고흥 현대병원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4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김씨도 범행 후 J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10여km를 달아나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왼쪽 손목을 자해해 중상을 입고 광주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년여간 사귀어오던 J씨가 지난 연말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말한 뒤 고향인 고흥으로 내려가 연락을 끊자 그동안 4차례나 J씨 집을 찾아와 "다시 사귀자"라고 설득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다시 J씨 집을 찾은 김씨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J씨에게 애원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집안에 있던 J씨 자매를 마구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김씨가 폭력을 휘두르자 거세게 반항한 뒤 집을 빠져나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언니는 미처 도망치지 못해 변을 당했다.

J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사귀는 동안에도 몇차례 폭행을 휘둘러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고흥 경찰은 10일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지난 2004년 3월에도 J씨를 승용차 안에서 때렸다는 사실을 확인, 상해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고흥=이승배·대성수기자 lsb54@kwangju.co.kr

변심한 애인 자매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여자친구 언니를 숨지게 한 뒤 자해한 김모(24)씨가 10일 광주 모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안서도 살인사건

경찰, 30대 용의자 체포

목포경찰은 10일 흉기로 50대 여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인 Y(36)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7일 밤 11시15분께 신안군 비금면 김모(여·54)씨의 집에서 흉기로 김씨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Y씨의 1t 화물차 핸들에서 발견된 혈액이 숨진 김씨의 혈액과 일치한 점과 범행 당시 현장에 Y씨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중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졸업앨범이 돌아온다

각급 학교, CD앨범 접고 책자형으로

'졸업앨범 감상은 역시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맛이 최고야'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졸업앨범에 복고 바람이 거세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10여년 전부터 CD형태만으로 제작되던 졸업앨범이 다시 고전적인 형태의 책자로 바뀌고 있는 것.

광주시내 일선 학교에서 CD로만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10개 학교 중 7개 학교꼴로 책자 형태만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책자앨범을 기본으로 하고 CD앨범을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CD형태의 졸업앨범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이용과 관리상의 불편 때문이다.

CD앨범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 볼 수 있다. 문득 학창시절 친구의 얼굴이 그리워 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컴퓨터가 없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또 CD는 표면손상 방지를 위해 처리한 방어막이 5년 정도 지나면 모두 휘발해 최장 5년 이상 보관이 힘든데다 자칫 표면에 흠이라도 생기면 아예 볼 수조차 없다.

광주동성여중 나정식 교감은 "CD앨범의 경우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으로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고, 시일이 지나면서 내용이 지워지기도 하는 등의 보관상의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책자 형태 앨범에서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자형태의 졸업앨범도 크게 변했다. 표지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내용은 판이하다. 책상 앞 근엄한 교장선생님의 사진은 사라지고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자유로운 포즈로 촬영한 사진들이 주류를 이룬다.

한편 주월중 등 일부 학교의 경우 책자형태의 졸업앨범 외에도 기존 졸업생들의 앨범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웹 졸업앨범'제작을 추진, 다른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광양시의장 수뢰 혐의 입건

광양경찰은 10일 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양시의회 김모(61) 의장을 뇌물수수 혐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섬진강 토석 채취 공사와 관련, 업자 3명으로부터 2005년 두 차례, 2006년 1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또 주유소 업자 등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업자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천300만원을 돌려 주었으며, 업자가 여행경비로 줬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1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세유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에 1억3천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경찰서장 폭언에 전산망 '시끌'

쌍나팔

○…광주의 한 경찰서장이 인력충원을 요청하는 직원(경사)에게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전산망에서 또다시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 관심.

○…10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 천모(59) 서장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파문과 관련, 경찰 내부전산망에 150여 건에 달하는 글이 올라와 있으며 댓글까지 따지면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고.

○…욕설을 한 경찰서장을 비난하는 글이 주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까지 이같이 글을 게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이번 파문은 지난 5일 광주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사가 지구대 인원재배치 등을 요구하며 관할 서장을 찾아갔다가 욕설을 들은 후 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촉발됐고, 해당 서장은 "실수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 불법주차 견인 10일째 중단

올부터 자치구로 업무 이관 '혼선'

광주시도시공사에서 자치구로 이관될 예정인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준비소홀로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광주시도시공사와 자치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93년 이후 맡아왔던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올해부터 광주 4개 자치구로 넘기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이관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도시공사와 해당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견인업무 담당자 가운데 8명의 고용승계 논의와 견인차, 시설물 환원 등의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동구 용산동과 남구 진월동, 북구 용봉동 등 토지를 빌려 사용했던 3개 구의 견인보관소를 폐쇄하는 대신 자사 소유의 서구 치평동 견인보관소만 남겨두면서 견인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남·북구 등은 구민들의 차량이 서구의 보관소로 견인될 경우 빚어질 민원을 우려, 불법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 견인 업무가 마비된 것이다.

특히 도시공사의 견인업무 직원 8명의 고용승계와 관련, 지자체들이 고용승계 대신 견인업무 자체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도시공사와 지자체간의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 이들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십건씩의 견인조치를 취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0일 현재까지 견인 건수가 전무한 상태다.

대신 차적조회 등을 통해 소유자의 전화를 확인, 연락을 취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차량소통의 방해를 받은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견인 업무는 지난 93년 당시 광주교통관리공사가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과 협약하고 업무대행을 해왔으나 95년 적자보전이 중단되면서 누적 적자가 35억원에 달하는 등 도시공사의 애물단지가 돼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백수보험' 가입자들

항소심서 패소

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백수(白壽)보험' 가입자들이 금리 인하로 못받게 된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일하게 원고가 이겨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92명이 "확정배당금 9억8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고들의 주장처럼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변동이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